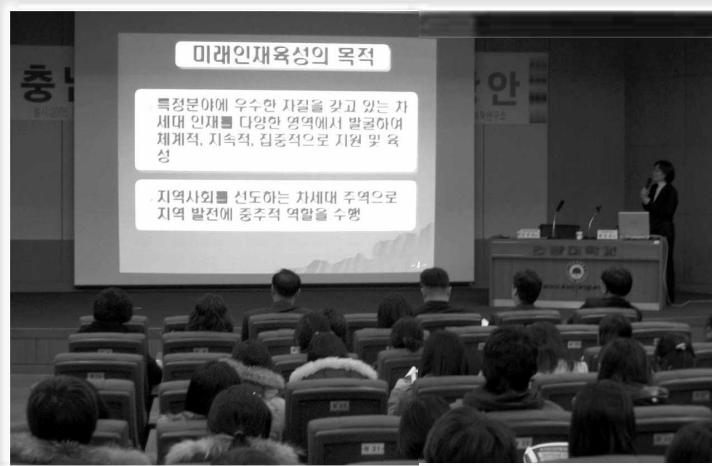


충남지역 미래인재 육성방안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과 건양대학교(총장 김희수)는 12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 건양대학교 명곡정보관 6층 국제회의장에서 초·중등학교 교사, 자치단체 및 교육청 관계자, 직업교육 전문가, 관련 학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지역 미래인재 육성방안"에 대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미래인재육성은 충청남도 도정 중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심포지엄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안을 수립하고 충남 지역에 적합한 인재육성 기본정책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건양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장 정경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모두 세 가지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권경주 교수는 "충남 청년지도자 육성방안과 과제"에서 농촌 지역 청소년의 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살피고 지역 사회 청소년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지역 연계방안을 강조하였다.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김언주 교수는 "충남영재교육의 실태와 효율적 추진방안" 발제에서 국가 수준의 영재교육과 충남의 영재교육시행계획을 비교하고 이에 따른 10대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학술 심포지엄에서 다루어진 세 가지 주제에 대해 김안국 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현식 교수(호서대학교), 하주현 교수(건양대학교)가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심포지엄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주최하였으며 건양대학교 기획진로처장 황복주 교수와 아동보육학과 황성원 교수가 주관하였다. 관계자들은 "충남지역의 미래인재양성방안에 대한 이번 심포지엄이 지역대학과 지역 연구기관의 유기적 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